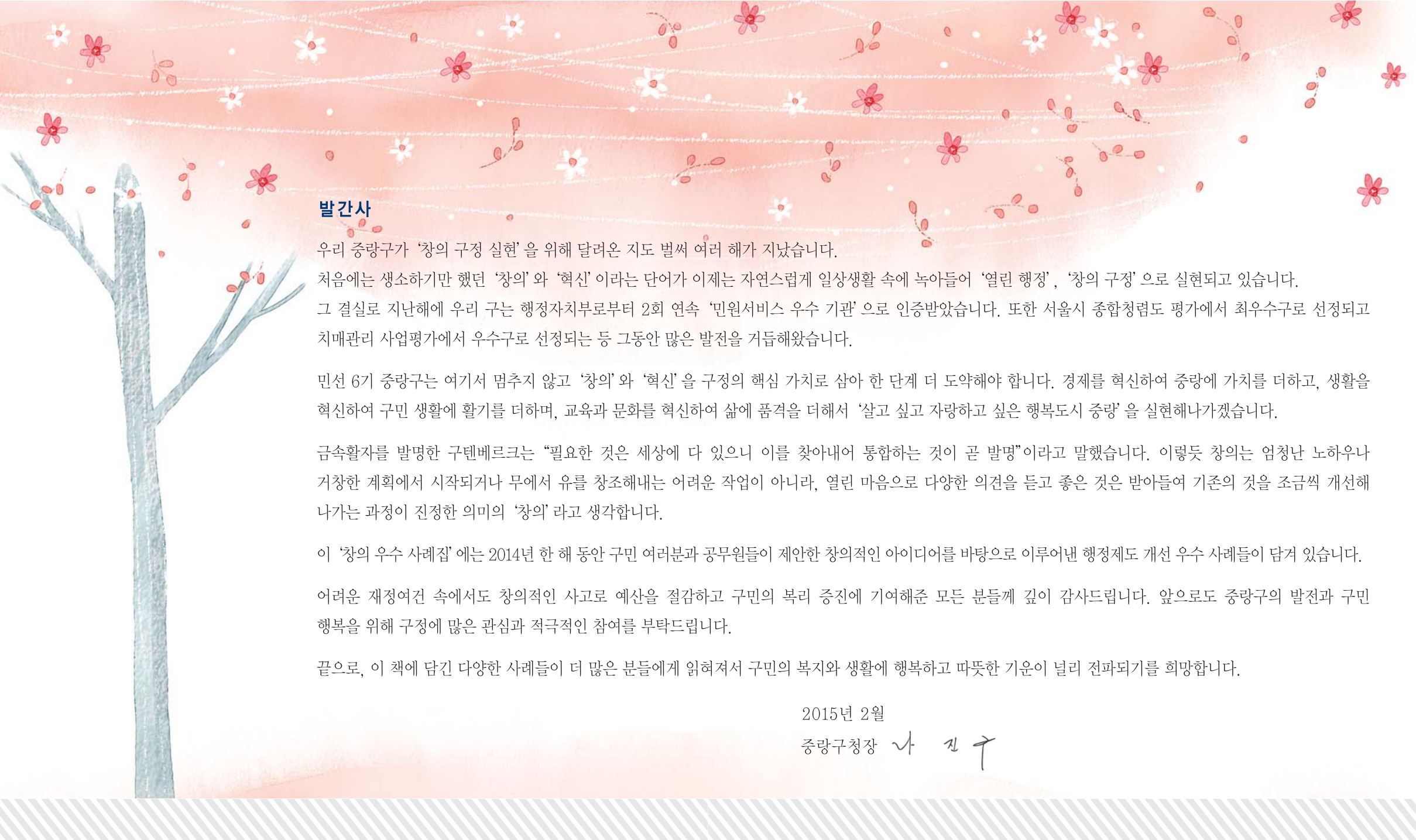


2014

행복도시 중랑의 창의 행정 이야기





발간사

우리 중랑구가 ‘창의 규정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창의’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열린 행정’, ‘창의 규정’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에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치매관리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선 6기 중랑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창의’와 ‘혁신’을 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경제를 혁신하여 중랑에 가치를 더하고, 생활을 혁신하여 구민 생활에 활기를 더하며, 교육과 문화를 혁신하여 삶에 품격을 더해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는 “필요한 것은 세상에 다 있으니 이를 찾아내어 통합하는 것이 곧 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창의는 엄청난 노하우나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기존의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의 우수 사례집’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서 구민의 복지와 생활에 행복하고 따뜻한 기운이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2월

중랑구청장 나 진 우

중랑구 상징물



도시 브랜드

중랑천,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 중랑의 자연이 바탕이 되어 중랑구민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의 슬로건으로, 민선 6기 비전인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구현하겠다는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함.



배 꽃

봉화산 주변에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늦은 봄의 *하얀* 꽃은 중랑 구민의 곧은 기개와 선비정신을 나타냄.



느티나무

수관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중랑구민의 발전적인 기상*을 상징함.



까 치

정원수목과 공원 등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중랑구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나타냄.

CONTENTS

- Part 1 _ 창의 행정을 말하다**
창의 행정 주요 활동
- Part 2 _ 창의 행정을 구현하다**
창의 행정 우수 사례 전파
- Part 3 _ 창의 행정에 도전하다**
창의 혁신 우수 제안
- Part 4 _ 창의 행정과 함께하다**
우수 학습동아리 소개
- Part 5 _ 창의 행정을 꿈꾸다**
독서아카데미 우수 독후감 모음

Part 1

창의 행정을 말하다

창의 행정 주요 활동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 아이디어



버려진 현수막을 청소할 때 쓰는
마대자루로 재활용한다면...?

창의 아이디어 제안이란?

조례상 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입니다.

중랑구 홈페이지 구민제안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공무원의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고객의 가치와 감동을 실현합니다.

● 창의 아이디어 제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1. 주민 생활편의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 창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나요?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내용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창의 아이디어 제안 쉽게 따라 하기

▶ 구민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창의광장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코너에 접속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 신청 및 제출하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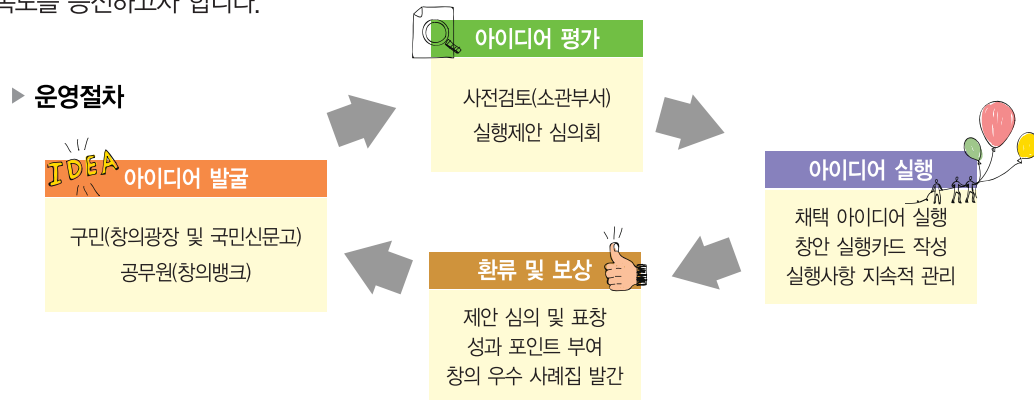
※ 창의광장 바로가기 : <http://www.jungnang.seoul.kr/portal/main.do>

▶ 공무원

서울홈페이지(행정업무전산망) 창의뱅크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안서 작성 → 등록!

창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제공

24시간 열린 아이디어 창구인 창의광장(구민)과 창의뱅크(공무원)를 통해 접수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 고객의 구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내가 제안한 창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처리될까?

- 제안한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기관을 재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소관부서로부터 통보 받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택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창의 아이디어 제안의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합니다.
- 실시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동의(전부 및 일부) / 행정참고 / 기시행 / 부동의 4가지 의견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제안자에게는 채택여부를 통보합니다.

● 채택된 제안의 관리와 인센티브 제공

- 제안을 채택한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창의 아이디어 제안 실행 카드를 통해 추진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총괄부서(기획예산과)에서는 창의 아이디어 실행카드를 통해 제안의 실행을 종합관리하며, 창의 아이디어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한 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1회 창의 아이디어의 제안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중랑구 구민 및 공무원 창의 아이디어 제안 건수 : 283건

☞ 창의 아이디어 우수 제안 채택 건수 : 구민(타 구민 포함) 5건, 공무원 10건

● 집중 공모

- 집중공모기간(연 2회)을 운영하여 직장 내 창의 BOOM UP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합니다.
- 집중공모기간 운영으로 직원 제언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제안자와 함께 담당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심과 동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 2014년도 테마 아이디어 실적

- 상반기 : 기획예산과 지정테마 「중랑구 공유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 하반기 : 총무과 지정테마 「중랑구청 중앙광장 활용 방안」
- 직원 49명 참여 57개의 아이디어 공유



예시) 프리마켓, 포토존 설치, 수공예품 전시장 등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청사 모습도 멋있게 꾸밀 수 있는 의견이나 벤치마킹 내용



이태리 :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서로 필요에 맞닿아 있는 물건을 직접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물물교환' 일 텐데요. 물물교환을 시/공간의 구애없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판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게시판이나, 주민들이 이를 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물물교환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물물교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물물교환 오프라인 공간을 청사 내에 만들어 두면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볼 수 있도록 물물교환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물물교환이 가능하게끔 작은 공간이라도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2014. 08. 05. 09:16:59)

황지용 : 주말농장 하시는 분은 농장에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자 가족이 소화하고 잉여분은 동료 직원, 이웃 등과 나눌 수 있는 작은 정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4. 07. 25. 11:47:24)

이선영 : 공공기관이나 개인시설중에 잘 쓰지 않는 빈 공간은 스터디룸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면 좋겠습니다.(2014. 7. 24. 20:59:55)

김상수 : 대학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재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공계.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전공과 학교가 맞아야 하지만 안 쓰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유익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14. 07. 24. 13:53:33)

김향내 : 휴가철에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면 애완견을 돌봐줄 곳이 필요한데 동물병원이나 애완견 호텔같은 경우 비용이 비싸서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견이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2014. 07. 23. 14:44:01)

전재인 :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에 미술 악기, 영어, 마술 등 재능을 가진 분들이 쉽게 본인의 재능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분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단순자원봉사보다 다양한 방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구 직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2014. 07. 23. 14:31:16)

김민경 :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 07. 23. 11:13:11)

책 속에 답이 있다, 창의 독서 아카데미

직원들에게 창의학습도서 및 자기계발서를 지원하고 독서를 장려함으로써 조직 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 새로운 가치 발굴, 사고의 전환 등 창의 행정의 지식 기반을 마련합니다.

● 운영 실적

- 행정자료실 및 중랑구립 정보도서관과 연계하여 창의를 주제로 하는 도서 및 자기계발서를 중심으로 직원의 독서를 장려합니다.
- 2014년도 창의 혁신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총 39명이 참여, 39편의 독후감 출품)하였습니다.

직원 창의교육 실시

● 상상 미술관 과정

-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는 법을 습득하고, 21세기가 원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미술과 함께하는 역사 속 시대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명화 알기', '명화를 내 속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내용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일머리를 깨우는 두뇌 트레이닝

- 일머리를 깨우는 두뇌 트레이닝 방법 습득을 통해 업무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여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고,
- '뇌의 CEO를 찾아라', '두뇌 트레이닝 실습'이라는 주제로 두뇌 트레이닝 이론을 정립하고 훈련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위한 'HIT 교수법'

- 사내강사 및 예비강사의 강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HIT 교수법 과정'을 개설하여 중랑구 사내강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고,
- '직무강의의 이해 및 동기부여', 'HIT 교수법', 개인 별 강의 시연 및 개인의 SWAT분석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론을 제시하고 강의실습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Part 2

창의 행정을 구현하다

창의 행정 우수 사례 전파



중랑구 소통의 광장 '나찾소'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중랑구 감사담당관 | ☎ 2094-0233

구청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구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나찾소'(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 2014년 10월 첫발을 내디딘 '나찾소'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움직이는 신문고'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 1년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 밖에 달아두었던 북. 중랑구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은 긴급한 현안이나 주민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형태다. 움직이는 신문고인 셈이다.

- 2014.10.28일자 '내일신문' -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현장찾GO! 소통하GO! 해결하GO!

지난해 10월 말 중랑중학교에서 개최된 1차 나찾소에서는 나진구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스쿨존 차도와 보도 구분, CCTV 확충 등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2차 나찾소에서는 용마터널 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교통 민원 대책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12월에 열린 3차 나찾소는 상봉동 코스트코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망우로 교통 혼잡 해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라며 나찾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2014년에 열린 세 차례의 나찾소에서 총 43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제기됐고, 이 중 4건을 제외한 39건이 해결됐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 불편 줄이는 진솔한 소통 현장

강추위가 매서웠던 12월 첫 주에 열린 세 번째 '나찾소'의 주제는 상봉2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코스트코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였습니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회원 숫자만 1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매장인 데다 서울에 매장이 3곳밖에 없어 하루 평균 9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 코스트코 상봉점 부근은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는 인근 경기 지역에서 까지 찾아오는 차량들로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나눔으로 행복만땅 중랑 만들기”

중랑구 자치행정과 | ☎ 2094-1365

주위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중랑구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으로 행복 가득한 중랑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랑구민에게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파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8만7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냥 좀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경험해보고 나니 그 이상으로 두려웠고 무서웠다. 평소 예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편은 아니지만, 그들의 불편함을 체험해봤더니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자원봉사학교 학생 소감문 中 -

중랑구로 자원봉사하러 가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중랑구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기타단체 등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봉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강생들을 봉사활동이 필요한 수요처와 연결해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선물 나눔 봉사’, ‘행정업무 보조’, ‘우리 동네 가꾸기’, ‘무료 한방 진료 STAFF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준비한 봉사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스쿨을 개최하여 관내에 위치한 기업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을 유료한

12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한방진료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어김없이 구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언재호야' 봉사단은 가천대학교 한의대 한방 의료봉사단으로, 지난 2003년부터 중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전담교수를 비롯해 지도 한의사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방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받은 주민만 1만 55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의료봉사를 벗어나 한약의 속성을 고려한 반복 진료로 동일 대상자에 대해 2개월 동안 침, 뜸, 부항 치료와 한약(첩약) 처방을 하며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한 당신, 즐겨라!

중랑구는 매년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이웃 사랑 정신으로 활동해 준 봉사자들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 특강, 전문 교육과정 진행 등을 통해



열심히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전문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는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함으로써 단순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랑구 재능나눔 방송아카데미

“꿈에 날개를 달다”

중랑구 홍보전산과 | ☎ 2094-0501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디어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 참여적 생산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누구나 미디어를 다루고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미디어 관련 분야는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미디어 교육은 시대적인 요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늘고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교육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랑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지역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 언론인의 꿈을 키워요

JBN 학생기자단은 언론인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언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중랑구 10개 고등학교의 진로상담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JBN 방송국 PD들의 재능 공유를 통해 운영되는 ‘재능나눔 방송아카데미’는 점점 다양해지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지역주민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소셜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약 6개월간 중랑구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하고 중랑구를 홍보하는 JBN 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중랑구 뉴스

재능나눔 방송아카데미에서는 현직에 있는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방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주말을 활용하여 연출과 카메라, 기사·작성, 리포팅, 아나운싱 등 파트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학생기자단은 JBN의 정식기자로 뉴스 취재, 기획기사 작성, 뉴스 진행 및 리포팅, JBN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JBN 학생기자단 뉴스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1년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과 함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JBN 학생기자단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증명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등 포트폴리오 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대학 진학과 미래의 언론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는 방송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주부기자단, 어르신기자단까지 운영해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구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늘려갈 것입니다.



우리일보

2014년 04월 10일 목요일
005면 일과사람들

중랑구 '제2기 JBN학생기자단' 운영

학생기자단 활동 통한 언론 체험의 장 마련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난해 이어 미래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 제공과 함께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한 언론 체험의 장으로 JBN 재능나눔 방송아카데미와 JBN학생기자단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기 JBN 학생기자단 위촉식을 갖고 최종 선발된 관내 8개교 10명의 학생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기자증을 수여한다. JBN 재능나눔 방송아카데미는 월간 다문화뉴스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구민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소셜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디어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관내 10개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학생을 최종선발했고, 이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을 활용해 중랑구청 인터넷 방송국의 현지 프로듀서와 아나운서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으로 연출과 카메라, 기사작성, 리포팅, 아나운싱 등 각 파트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원환 기자

市政新聞

2014년 04월 10일 목요일
015면 자치구

중랑구 'JBN방송아카데미' 운영

2기 학생기자단 위촉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미래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JBN방송아카데미'와 '제2기 JBN학생기자단'을 함께 운영한다.

구는 미디어 교육제공과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한 언론 체험의 장으로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기 JBN 학생기자단 위촉식을

를 갖고 선발된 관내 8개 고등학교 총 10명의 학생들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10개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의 학생을 최종선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구청 인터넷 방송국의 현지 프로듀서, 아나운서의 재능기부 나눔봉사로 방송연출과 카메라, 기사작성, 아나운싱 등 각 파트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신속 · 공정 · 친절한 민원서비스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민원행정 서비스 1등 자치구”

중랑구 민원여권과 | ☎ 2094-0613

신속 · 공정 ·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랑구는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에서 2011년 2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명실공히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민원서비스 기관으로 재인증되었습니다.

- 2011년 120 시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최우수구
- 2011년 서울시 하반기 민원서비스(민원응대 친절분야) MVP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도란?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의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800점 이상 득점 시 '인증(서)'을 수여하는 제도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서비스 운영 및 운영 성과 3개 영역, 133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진단내용을 민관 합동 전문가 및 현지 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공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중랑구는 2012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도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민원실 북카페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보급,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단순한 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시간이 더욱 길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랑구청 민원 여권과 민원대기실에는 방문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 공간에 잡지 및 시, 소설 등 2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한 작은 북카페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민원용 PC 및 수화통역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용 팩스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등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여권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야간 민원실을 2014년 9월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매주 화·목요일)로 확대 운영하여 일과시간에 구청에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One-Stop 민원 처리 서비스

출생·양육수당, 사망·금융조회, 혼인·전입과 같이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민원들을 일괄 접수해 처리하는 'One-Stop 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시민일보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011면 서울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중랑구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호평

중랑구(구청장 나진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13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내용을 각 행정기관이 스스로 진단하게 해 신청을 받아 인증받는 것이다. 점수가 800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우수·합

격 등 전문가들의 심사와 현지심사 등을 거쳐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2년마다 인정받는다.

구는 지난 8월까지 진단에 따른 근거 자료를 준비해 우수기관 자격을 갖춰 행정자치부에 인증을 신청했고 전문가 심사·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증기관에는 인증마크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구는 앞으로 인증마크를 공문서 및 각종 홍보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구는 2012년에 최초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그간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민원실 북카페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보급, 사전심사 창구제 확대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민원정보 제공, 민원 안내 도우미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혜진 기자 syj08@siminilbo.co.kr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접수를 비롯하여, 사망 신고 시 사망자 명의의 금융·토지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누락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은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기존 7종에서 13종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 처리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 처리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모니터제를 통해 민원 시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랑구는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을 획득한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힐링의 공간, 숲

“자연이 green 도시 녹색중랑”

중랑구 공원녹지과 | ☎ 2094-2385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정신적, 신체적 치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랑천, 망우산과 용마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녹색도시 중랑구는 풍부한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힐링공간 조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장애숲길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족 단위의 등산객도 늘어남에 따라 중랑구는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 확보를 위해 무장애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무장애숲길은 목재 바닥을 깔고 경사가 거의 없는 숲길을 조성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장애숲길은 면목동에 소재한 용마가족공원부터 아토피 치유의 숲 구간까지 폭 2m, 길이 1km로 기존 등산로와 연계해 조성하였으며, 숲길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산책로 이용객들이 자연을 충분히 즐기며 여유있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자연과 친구가 되는 유아숲속교실

인터넷과 TV등으로 자연체험이 쉽지 않은 유아들에게 관내의 자연녹지를 활용하여 숲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랑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유아숲속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숲체험을 희망하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10개소를 선정해 중랑캠핑숲, 망우산 사색의 길, 사가정공원 등 중랑구 내 걷고 싶은 길과 공원에서 나무와 꽃,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에 관련된 숲해설가의 설명과 관찰을 통해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길과 관련된 이야기와 지역에 얽힌 역사와 문화도 함께 배우는 등 유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숲 속에 도서관이 있다고?

중랑구는 자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휴식과 감성공간으로 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마산과 망우산 둘레길에 위치한 숲속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독서 문화공간을 제공해 숲 속에서 책을 읽으며 힐링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숲속도서관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책을 읽은 후 제자리에 꽂아두는 개방형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목동에 소재한 용마산 가족공원의 무장애 숲길 끝 지점에 위치한 '아토피 치유의 숲 도서관'에는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200권이 비치되어 있고, 망우동에 소재한 '망우 사색의 길 도서관'은 용마산으로 이어지는 등산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성인 도서 200권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는 국내 최상급 오토캠핑장 '중랑캠핑숲'과 주택가에 인접한 도심 속

휴식공간 봉화산 둘레길,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는 용마폭포공원 등 다양한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봉화산 지킴이 구성, 자연휴식년제 등의 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없는 중랑

“중랑구, 치매관리 사업평가 우수구”

중랑구 건강증진과 | ☎ 2094-0853

경찰과 소방당국은 1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유명연예인 박00 씨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할아버지 박모(86) 씨와 할머니 천모(80) 씨는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였으며, 아버지 박 씨는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아버지 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추정 메모가 발견됐으며, 메모에는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용서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모두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여 아버지 박 씨가 두 분을 홀로 모시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홀로 치매 노인 두 분을 부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그 병을 앓는 환자 자신에게 큰 불행이자 안타까운 일이며, 오랜 기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보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가족들 또한 치매의 2차적인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랑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랑구는 2009년 중랑구치매지원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11년에 이어 2014년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치매검사 ‘주민센터’로 찾아가다

중랑구는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치매검진은 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등 어르신이 많이 찾는 다중 이용시설 검진과 주민센터 검진이 있으며, 연중 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검진을 실시합니다.

선별검진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은 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게 되며,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등록관리 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및 다양한 치매관리 프로그램

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치매 원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중랑구는 원인 확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은 다니시던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협약병원) 치매 원인 확진검사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지원도 월 3만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체조



아름다운 동행



희망 다이어리



의사와의 상담



독서클럽

또한 중랑구치매지원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체조교실, 컴퓨터 인지재활 등 매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진행 및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힐링 9중세트’를 만나다

중랑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월 1회 정기모임), 두뇌 썬크빅, 희망다이어리, 치매 궁금중 탈출, 의사와의 상담, 한사랑 자조모임(운동), 어깨동무 자조모임(조각담요 뜨기), 독서클럽, 집단심리상담으로 이루어진 힐링 9중 세트를 운영함으로써 치매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의 내면의 갈등을 살피고, 보호자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위안과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4년 한 해 동안 ‘해피브레인’(전문 자원봉사단) 21명을 가정으로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는 물론 어르신의 생신에 생신파티와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이 내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중랑구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Part 3

창의 행정을 제안하다

창의 혁신 우수 제안



하나. 제안합니다

작아진 아이들 옷, 공유하면 어떨까요?

제안자 | 박겸송(중랑구 봉우재로)



제안요약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지만 얼마 입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아이들 옷이 많음. 버리기 아까운 아이 옷을 합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생각해봅시다

- 아이들 수가 줄면서 예전에는 형제끼리 물려 입기라도 했던 옷들은 이제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음.
- 물론 누가 입어도 아직 멀쩡한 옷이라 의류함에 넣기는 하지만 아까운 건 어쩔 수 없고, 내놓고 팔아보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함.

바꿔볼까요?

- 요즘 소비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거나 나누는 등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아이들 옷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어린이집에서 옷을 수거하고, 이를 구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검수하여 판매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믿을 만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음.
- 구청에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한다면 합리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구축되리라 생각함.

이렇게 좋아져요

- 일단 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에게 다양한 옷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마음껏 입혀볼 수 있으며, 미리 버릴 생각에 아이보다 큰 옷을 구입할 일도 적어질 테고, 또 작아진 옷은 다시 판매할 수도 있어서 자원 낭비도 줄어든 것이라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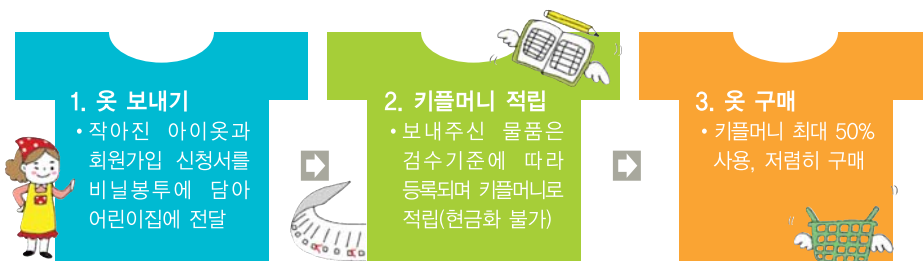
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무엇을?

- 지역 공동체 물건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구, 공유기업 '키플' 및 국·공립 어린이집 협업을 통한 상설적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 추진 기간 : 2015년 7 ~ 9월
- 추진 대상 :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총 31개원
- 추진 방법
 - 중랑구청, 공유기업 '키플' 및 국·공립 어린이집 협업을 통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세부 추진 절차



- 키플(<http://www.kiple.co.kr>) 사이트에서 옷 구매 시 적립된 키플머니로 최대 50%까지 결제 가능
-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비영리민간단체 '옷캔'을 통해 아프리카 등으로 기부
- 2014. 7. 30.: 영·유아 옷 추진계획 수립
- 2014. 8. 5. : 공유기업 설명회 개최

- 2014. 8. 7. : 국·공립 어린이집 임원진 회의 개최
- 2014. 8. 11.~14.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 2014. 8. 18.~20. : 홍보물 및 가정통신문 배포
- 2014. 9. 4.~5. : 영·유아 옷 수거
- 2014. 9. 6.~30. : 검수 및 적립금 지급

이렇게 달라졌어요.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법인 어린이집 총 31개소 2600여 명 참여
- 옷 수거 5798건(실 등록건 2899건, 약 50%)
- 등록의류 금액 합계 : 1166만8700원(평균단가 : 4025원)
-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뉴스타운 등 언론보도

중랑구 국·공립 어린이집 31개원 참여



②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공유기업 '키플' 수거



한 걸음 더~!

-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시행
- 개인 및 사립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

언 론 보 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 도시에는 도자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소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단지 아직 서로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이제 바로 도시에요.'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대만의 한 카페를 무대로 한 이 영화는 물물교환에서 얻어지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도 사활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아픔 어린 1998년 국민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운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4년 아나바다 운동은 '공유'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학부모가 '안 입는 아이 옷'을 미리 배포한 의류 수거용 봉투에 담아 어린이집에 전달하면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집해 공유기업인 키플(Kiple)에 보내게 된다.

키플은 그 옷의 등급을 매겨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각 가정에서는 포인트와 현금 50%를 이용해 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아이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공유사업에는 중랑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구는 3000여명의 원아 가운데 20% 수준인 600여명을 참여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1억2000만원, 1인당 연 20만원 내외의 가계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4년 08월 12일 화요일
024면 사회

헌웃 줄게 새옷 다오

중랑구 영유아 옷 공유... 600여명 참여할 듯

중랑구가 옷장 속에 잠자는 아이 옷을 나눠 입는 '영유아 옷 공유사업'을 벌인다.

학부모가 안 입는 아이 옷을 미리 배포한 의류 수거용 봉투에 담아 어린이집에 전달하면 정해진 날짜에 모아 아공유기업인 '키플'에 보낸다. 키플은 옷의 등급을 매겨 옷의 주인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옷 주인은 이 포인트와 현금 절반을 내 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아이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27곳이 참여한다. 구는 3000여명의 원생 가운데 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억 2000만원, 1인당 연 20만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도 신발도 급세 작아지기 마련인데 버려지니 아깝고 두지니 짐만 되는 각 가정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자원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마련했다. 나진구 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모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늘리는 다양한 공유사업을 발굴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한 공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hkrudwn@seoul.co.kr

시대일보

2014년 08월 12일 화요일
006면 서울

20세기 아나바다, 16년 만에 새 옷 입다

중랑구, 영유아 작아진 옷 나눠입기 운동 추진

"이 도시에는 도자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소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단지 아직 서로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이제 바로 도시에요."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다. 대만의 한 카페를 무대로 한 이 영화는 물물교환에서 얻어지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아픔 어린 1998년, 국민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운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4년 아나바다 운동은 '공유'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공유도시 중랑만들기의 일환으로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아이 옷을 나눠 입는 '영유아 옷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학부모가 '안 입는 아이 옷'을

미리 배포한 의류 수거용 봉투에 담아 어린이집에 전달하면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집하여 공유기업인 키플(Kiple)에 보내게 된다.

키플은 그 옷의 등급을 매겨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각 가정에서는 포인트와 현금 50%를 이용해 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아이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공유사업에는 중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구는 3000여명의 원아 가운데 20% 수준인 600여명을 참여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1억2000만원, 1인당 연 20만원 내외의 가계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진구 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한데 모여 공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공유사업을 발굴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주회기자 mc355@hanmail.net

중랑구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공유도시 중랑만들기의 일환으로 옷장속에 잠자고 있는 아이 옷을 나눠입는 '영유아 옷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학부모가 '안 입는 아이 옷'을 미리 배포한 의류 수거용 봉투에 담아 어린이집에 전달하면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집해 공유기업인 키플(Kiple)에 보내게 된다.

키플은 그 옷의 등급을 매겨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각 가정에서는 포인트와 현금 50%를 이용해 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아이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공유사업에는 중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구는 3000여명의 원아 가운데 20% 수준인 600여명을 참여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1억2000만원, 1인당 연 20만원 내외의 가계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진구 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한데 모여 공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공유사업을 발굴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기획홍보과(02-2094-0524)로 문의 한다.

둘. 제안합니다

CCTV 영상자료 단속부서 바로 표출 방안

제안자 | 전산정보과 행정6급 심은옥



제안요약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법 주차단속 등 영상자료가 많이 활용되어 안전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부서에서는 별도로 관제센터에서 영상자료를 열람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 부서로 즉시 영상을 표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생각해봅시다

- CCTV 모니터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개선

바꿔볼까요?

- CCTV 영상자료를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해당 부서에 영상 표출
- 재난 등 비상시 관제센터에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영상 송출

이렇게 좋아져요

- 주민 불편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로 민원발생 감소
- 긴급 상황에 대해 유관기관의 합동 대응 가능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CCTV 영상자료 단속부서 바로 표출방안

무엇을?

-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685대의 CCTV 영상을 긴급상황 발생 시 구 청사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송출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 내 상황실 근무자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 기존 행정망과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 가능



어떻게?

- 2013. 1 ~ 4 : 전국 최초 이지스 영상안전 시스템 개발(특허 획득)
- 2013. 5 ~ 6 : 이지스 영상안전 시스템 연계 구축(1차)
 - 중랑경찰서, 간부실, 당직실, 재난부서(도로과, 안전치수과), 동 주민센터
- 2013. 7 : 이지스 영상안전 시스템 연계 확대 구축(2차) - 56사단
- 2013. 8. 19. ~ 22. : 이지스 영상안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을지훈련 실시
 - 수해 등 재난 녹화영상 송출, 가상침투 훈련영상 및 실시간 훈련영상 송출
- 2014. 4 : 이지스 영상안전 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렇게 달라졌어요!

- 전국 최초의 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로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으로 행복 중랑 실현에 기여

- 신개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년 대비 범죄 발생률 12% 감소
- 언론 보도 : 연합뉴스(YTN), KBS 등 14회
 -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 실시간 전송으로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
- 2013년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 특허 출원 : 네트워크 기반 영상경보시스템 및 그 방법(10-2013-0057216)
- 용산구, 군위군청 시스템 도입, 서울시 대공원사업소 및 대전시 등 구축 중
- 117개 기관 3150명 견학 방문

한 걸음 더~!

-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을 위한 영상전송 방식 개선 예정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부가 기능 개발



셋. 제안합니다



동절기 약수터 수도꼭지 개선

제안자 | 공원녹지와 행정7급 김승만

제안요약

관내 약수터 수도꼭지 동결을 예방하고자 수도꼭지 아래쪽에 구멍을 내어 물을 흘려보내 수도꼭지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함.

생각해봅시다

- 겨울철 약수터 수도꼭지가 얼어 약수터를 찾는 주민의 불편이 빈번히 발생

바꿔볼까요?

- 동절기에만 수도꼭지 아래쪽에 1mm 정도 구멍을 뚫어 물을 계속 흘려보내 동결을 예방

이렇게 좋아져요

- 겨울철 주민의 약수터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을 해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약수터 수도꼭지 개선

2013년 11월 : 동결 방지용 수도꼭지 제작



수도꼭지 아래쪽 타공사진 I



수도꼭지 아래쪽 타공사진 II

2013년 12월 : 동결 방지용 수도꼭지 시범설치 운영



시범설치
근접사진



시범설치
원경사진

☞ 2013년 12월 2일 ~ 12월 24일까지 야간 최저기온 영하 8℃ ~ 영하 9℃ (기상청 발표)에서 장기간 운영 결과 수도꼭지 동결없이 배수는 원활하였으나,

☞ 배수 구멍이 좁아 수압이 높아져 주변으로 물이 튀기는 등 수도꼭지 주변 결빙이 조성되는 등 민원발생.

2014년 1월 : 수도꼭지 구조 연구를 통한 동결방지용 수도꼭지 개발 및 시범운영



수도꼭지 구조 연구



수도꼭지 패킹을 활용하여
소량의 누수가 발생토록 개발



동결방지용 수도꼭지
시범설치 운영

☞ 시범운영 결과 수도꼭지 동결 없이 배수도 원활하고, 수도꼭지 주변 결빙 없이운영이 원활하여 전체 약수터로 확대 설치 운영

무엇을?

- 겨울철에 약수터 배관 및 수도꼭지가 얼어붙어 해빙 처리 보수비가 증가하고 약수터 단수로 이용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수터 수도꼭지 개선

어떻게?

- 약수터 수도꼭지 아래쪽에 1mm 정도 구멍을 뚫어 소량의 물을 계속 흐르도록 하여 동결 예방
 - ☞ 시범 운영 후 동결 예방에 효과가 있으면 전체 약수터로 확대 운영

이렇게 달라졌어요!

- 2014년 3월까지 동절기 내내 동결 및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어 약수터 보수비 절감 및 약수터 동결과 관련된 민원 제로를 달성

한 걸음 더~!

- 동결방지용 수도꼭지 보완 후 특히 출원 검토. 2014년 동절기에도 이를 적용하여 약수터 동결 관련 민원 제로화를 추진

넷. 제안합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설계 숲 속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제안자 | 공원녹지과 행정9급 허혜미



제안요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함.

생각해봅시다

- 노인 자살 원인 중 1위는 고독으로 홀몸노인 등 많은 노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괴로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숲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

바꿔볼까요?

- 숲해설가 등을 활용하여 노인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숲 산책
 - 명상의 시간
 - 공예체험 : 손수건 물들이기, 생태공예, 점토공예 등
 - 웃음 레크리에이션 등
- 운영 장소 : 봉화산, 용마산 등

이렇게 좋아져요

- 오감을 일깨우는 숲에서의 체험 활동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됨은 물론 역할 상실로 겪는 고독감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아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심신 안정에 기여
- 노년까지 제공하는 그린서비스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설계 숲 속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나무목걸이 만들기(2014.4.16)



애벌레 놀이(2014.7.12)



나무열매 관찰(2014.7.20)



돌레길 나무 관찰(2014.8.15)

무엇을?

- 중랑구 걷고 싶은 길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숲해설가와 함께 생태모니터링을 진행
- 동식물의 자연생태를 숲에서 직접 관찰하고 느끼게 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용마산 자연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함.
- 숲 산책, 명상의 시간, 공예 등으로 구성

어떻게?

- 장 소 : 봉화산, 용마산
- 추진계획 수립 : (2014. 3. 20) '용마산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계획'
- 추진경과 : 총 4회 진행
- 운용방법 : 참가자를 10~15명씩으로 나누어 그룹당 숲해설가 1명씩 배정
학교 및 단체수업 접수 시 30명 이상일 경우 숲해설가 2명씩 배정

● 탐방코스

- 봉화산 돌레길 : 봉수대공원→참나무숲→진달래와 함께→생각나무→벗나무의 꿈→기후변화 이야기→먹골배→봉수대→생태보전구역→너럭바위
- 용마산 생태길 : 사가정공원→약수터길→야생식물자생지→벚꽃산책길→약수터길

이렇게 달라졌어요!

- 오감을 일깨우는 숲에서의 체험 활동으로 노인성질환의 예방, 치료, 심신 안정에 기여
- 노년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활력을 증진

한 걸음 더~!

- 숲 속 어르신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2015년 프로그램 운영예산(시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향후 검토

다섯. 제안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름표 배포

제안자 | 교통지도과 토목6급 홍준수



제안요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전거 이름표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무료 배포함.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CI를 스티커에 삽입함으로써 우리 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제안함.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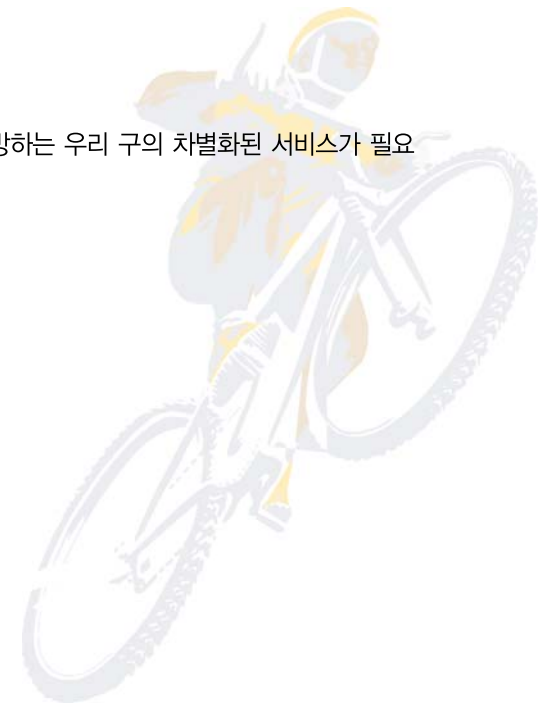
-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분실, 도난 등을 예방하는 우리 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

바꿔볼까요?

-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도난방지용 이름표를 희망 주민에게 배포
- 투명 스티커 형태로 유성펜으로 이름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작
- 구청 소속기관 어디서나 방문 수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좋아져요

- 자전거 분실, 도난, 방치 등을 줄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름표 배포



[제작예시]



학교

○학교 ○반 ○○○



010 1111 1111
중 랑 이

무엇을?

-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방치 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제작하여 배포

어떻게?

- 자전거 이름표 1000부 제작
 - 중랑 소식지(구보)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자전거 이름표 배부
 - 투명스티커(2x10cm) 제작 배포(1000개당/ 5만5000원)
 - 중랑구청 소속기관 어디서나 방문 수령 가능

서울시 공무원 시정논문 부문 장려상 수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지 내 공공주차공간 확보 방안 연구

제안자 | 도시개발과 토목7급 박지오

연구 요약

- 주거지역에서의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관 협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지의 건축주가 소유 대지에 공공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처럼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사용권을 제공하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논문 개요

연구분야	소요예산(천원)	실행 여부
교통	없음	2015년 실행 예정

추진 배경(연구 목적)

-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공공기관 주도의 주차장 확보 정책은 높은 보상비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음.
- 주민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주차제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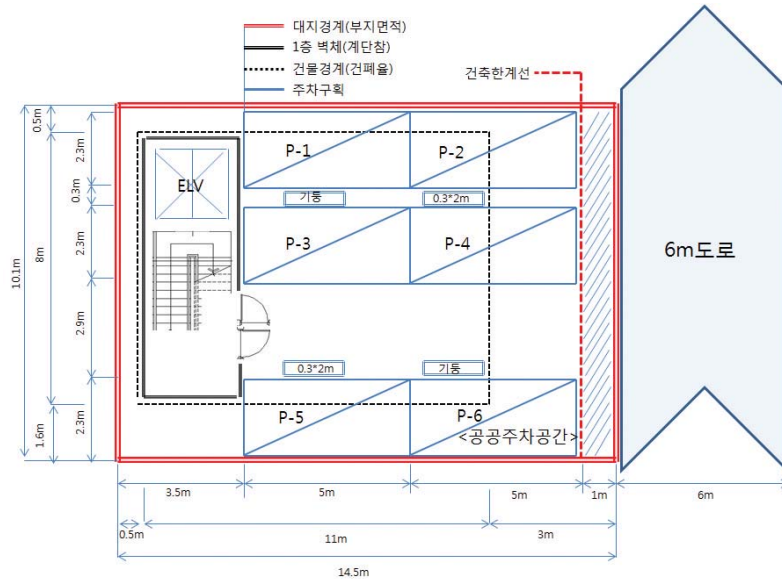
연구 내용 및 방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례 대상지 선정
 - 사가정역 일대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 도로변은 양호한 기반시설에 접해 있지만 이면부는 도로가 협소하고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있음.
- 사유지 내 공공주차공간의 확보 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가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차면수 외에도 1개에서 2개 정도의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
 - 그 주차면을 우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좀 더 손쉽게 1개 층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방안임.
- 공공주차공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
 -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중랑구 면목로(대지면적 : 146m²) 건축물이 신축을 통해 공공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개면의 주차공간 확보 가능



서울시 공무원 시정논문 부문 장려상 수상

● 시물레이션 검토 도면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적정 계수 제안

- 공공에 사용권을 제공하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대지 내 공지에 상응하는 용적률 산정 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 산정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3]이내임.

● 사례 대상지 적용을 통한 향후 확대 가능성 검토

- 면목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618개 필지 중 1개 또는 2개의 추가 주차 면적 확보가 용이한 200㎡ 이상 필지가 약 250개 정도이고, 그중 20%에만 공공주차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아도 50면의 활용 가능한 주차면이 조성되어 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9면보다 많아 주차난 개선 효과가 기대됨.

● 관련 법률 검토

- 공공주차공간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법에 따른 사용대차 약정을 통해 사용권을 공공기관에 양도 가능하며, 추후 발생하는 분쟁은 민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결 가능

기대 효과

● 주거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도시 재생 효과

- 저렴하고 수월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보는 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도시 재생 효과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공공주차공간 1면당 48만 원의 연수입이 발생하고 확보 면수에 비례하여 세외수입 증가

● 예산 투입 없는 공영주차장 건설 효과

- 주차면 50개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략 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주차공간 50면의 확보를 통해 예산 투입이 전혀 없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효과

● 횡단전개 효과

-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제도로 공공기관에 의한 홍보만으로도 횡단전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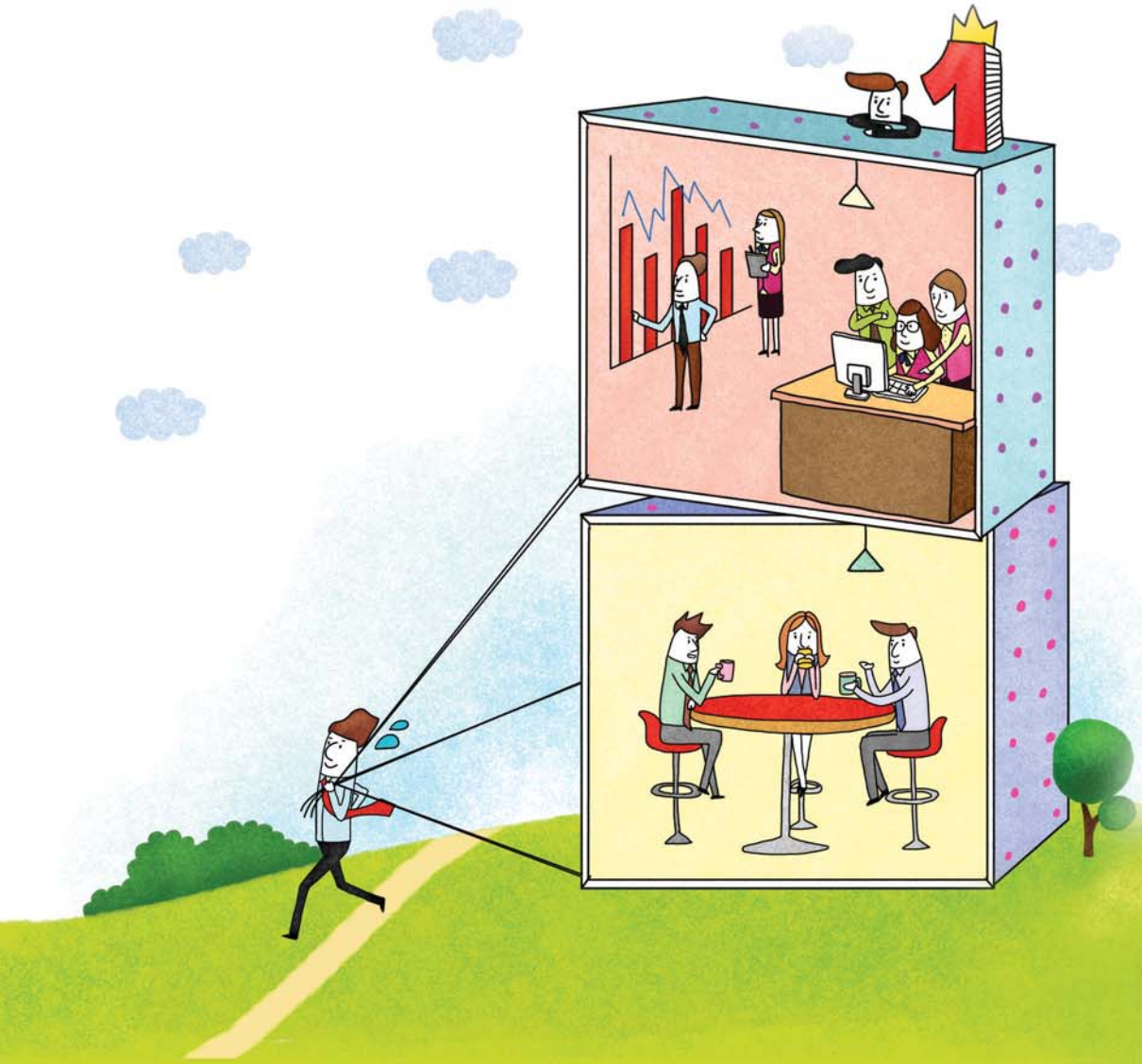
● 주거환경 개선

- 장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대체하여 이면도로를 쾌적하고 보행이 용이한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전환

Part 4

창의 행정을 함께하다

우수 학습동아리 소개



공원녹지와 미운오리새끼

동아리 연구 부분 최우수상

어떠한 동아리인가요?

‘미운오리새끼’는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율학습동아리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구성된 미운오리새끼는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타 지역 공원녹지시설의 조성 사례 조사, 선·후배 공무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중랑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미운오리새끼는 항상 공원녹지와 주요 업무에 대해 담당 직원만의 고민이 아닌 전 직원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자료조사를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등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셨나요?

2014년에는 공원녹지와 주요 업무인 ‘용마폭포공원 내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동아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안이었던 소규모 인공암벽장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호응 유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제대회 규모의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원 내 인공암벽장을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용마폭포공원 현장답사



고양시 인공암벽장 답사



응봉산 인공암벽장 답사

국제대회 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산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직원 간 토론 및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요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다수의 현장방문을 통해 용마폭포공원 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타 지역 인공암벽장 답사 및 암벽전문가 자문 실시, 계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인공암벽장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중랑구의 발전을 바라보며...

그 결과 타 시도 사례로 비추어보면, 총 예산 10억 원으로는 조성하기 힘든 폭 30m, 높이 17m 규모의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내실 있는 인공암벽장 조성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 조성 타 시도 예산 투입액 : 15억~25억 원) 현재 인공암벽장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운오리새끼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여 중랑구의 비상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직무발명동아리

동아리 연구 부분 우수상

어떠한 동아리인가요?

직무발명동아리는 도로, 하수도, 교통 등 직무 관련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시설물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세입 창출을 도모하는 창의학습 동아리입니다.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모임을 수시로 운영하여 도로과 사무실과 공사 현장 등에서 매회 5~16명 정도가 모여 모임(연 120명 참석)을 가졌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연구모임뿐 아니라 등산, 야유회,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필요시 연구모임 구성원 외에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일반 직원까지 참여시켜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셨나요?

직무발명동아리는 서울시 역점 추진사업인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와 관련하여 '보도침하 방지용 경계석'을 연구(2014. 6. 5. 디자인특허 등록제30-0747123호)하였고, 2014년 8월 우리 구 관내 면동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때 시범적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차로 알림 표시'를 제안하여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주변 교차로에 알림 표시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하기 편안한 도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는 2014년 11월 21일자 중앙일보 등 일간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교차로 알림 표시를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이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사거리나 삼거리 교차로, 아파트 입구를 인지하지 못해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면도로 교차로 현황 사진】



【교차로 노면표시 실시 사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차로 중앙에 사거리(十), 삼거리(ト) 노면 표시를 함으로써 운전자가 쉽게 교차로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동아리에서 개발한 '효과적인 교차로 알림 표시'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차량사고 예방은 물론 운전하기 편안한 도로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받아 제안이 채택되었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침하 방지용 경계석'은 보도블록 상습침하 구간인 차량 출입구간과 경계석 인접 부분에 대한 침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계석 설치 간격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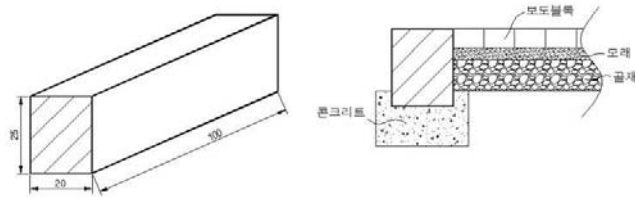
하게 유지시키고 포장용 골재량을 정확하게 포설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디자인으로 우리 동아리에서 보도블록 정밀시공 및 보도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의 보행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개발하고 특허 출원 및 제작 · 시공한 것입니다.

【보도 침하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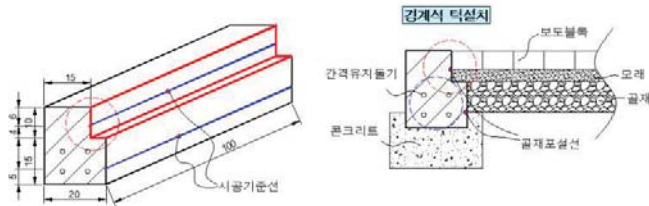


【보도침하 방지용 경계석 현황 도면】

<경계석 변경 전>



<경계석 변경 후>



【시공 현황 사진】



침하방지용 경계석 설치



시공선에 의한 모래 포설



보도블록 포장 완료

직무발명동아리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면동 초등학교 주변의 보도 신설구간에 보도침하 방지용 경계석을 제작 · 설치 · 정밀시공하여 보도침하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의 사거리, 삼거리 교차로에 효과적인 교차로 알림과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하기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였고, 명함 뒷면에 눈금자 및 보도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점검기구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기대하며...

이 밖에 우수 사례로서 2014년 상반기 서울 창의상 창의실행 부문에 ‘보도침하 방지용 경계석’을 제출하였고, 2014년 11월 21일 서울시에서 교차로 노면표시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중앙일보 등 일간신문 및 라디오방송 홍보).

또한 효과적인 교차로 알림 표시(十, 卜) 노면 표시 내용(25개 자치구와 함께 만드는 희망 서울, 희망행정 100선) 책자에 “함께 누리면 더 행복한 공유 서울” 내용으로 수록되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서울 창의상 수상).

앞으로도 직무발명동아리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아카데미

동아리 연구 부분 장려상

어떠한 동아리인가요?

도시정비아카데미는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흐름과 방향에 적합한 행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셨나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과 사회적 흐름에 대하여 토론·연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한 최고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임으로, 2014년 10월부터 매회 10여 명(누적 80명)이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 토론을 통하여 업무 공유의 용이성과 행정 처리의 일원화를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2회(2·4주 금요일),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학습 스타디를 가졌고, 도시계획 또는 정비사업의 주요 법령 제·개정 내용 및 개별 판례 등을 숙지하여 주택 정책과 관련된 최근 이슈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업무와 연계함으로써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바로 업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하였고, 담당 업무가 아닌 타 업무인 경우도 민원 응대 및 처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나은 행정을 기대하며...



도시정비아카데미는 부서 전체 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또는 주요 법령 사항 등에 대한 직원들의 자율적인 토론의 공간입니다. 수시로 제·개정되는 도시계획 법령 등을 논의하여 추진사업별 현안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아카데미는 변화되는 행정과 지역요구에 맞는 도시개발 연구를 지속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Part 5

창의 행정을 꿈꾸다

독서아카데미 우수 독후감 모음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를 읽고

감사담당관 | 행정7급 | 조재성



● 주변에서 보면 말주변이나 슷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각종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거나 가끔씩 맞장구치면서 호응하는 정도이다. 요즘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사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잡담이 능력이다>는 올해 4월경 ‘잡담’이라는 친근한 단어와 ‘능력’이라는 매력 있는 말에 호기심과 매력을 느껴 모처럼 독서삼매경에 빠졌던 책이다.

● 잡담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잡담’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책으로 펴낸 그 내용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나 자신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이 독후감을 통해 내가 느꼈던 이 책의 고마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잡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직장생활을 하는 나의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용건을 전하는 대화만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세상이 정보화되다 보니 대화도 교류를 위한 대화보다 자신이 전달하려는 용건과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한 대화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평소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는 매우 능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간단한 잡담에는 어색함을 느낀다.

● 평소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직장동료나 상사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오히려 편할 수 있지만 안면은 있어서 평소 인사를 하고 지냈지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 다소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분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경우에 자주 느꼈던 것 같다.

● 이 책은 이런 경우에 서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잡담이며, 잡담은 알맹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필요없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잡담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설명이 굳이 없더라도 생각해보면 잡담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서 처음 대하는 상대와의 힘든 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 나의 경우,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일단 안면이 있으면 그다지 친분이 없더라도 오고가며 만나게 되는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편이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에는 선후배를 떠나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인사만 하는 것은 잡담이 아니며 인사 다음에 이어지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회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

서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잡담이며
 잡담은 알맹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필요없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잡담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

읽으면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은 잡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다음에 이어져야 할 플러스알파, 즉
 잡담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 그 방법론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칭찬’이었다.
 사실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칭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괜한 칭찬이
 오히려 놀림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한 적도 있고, 첫 대면에 상대를 칭찬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방송에서 하는 너무나 형식적인 멘트라고 오래전
 부터 생각했었다. 이 책은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진지하게 칭찬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특별한 것이 없는 부분을 칭찬하고 또한 간접적인
 칭찬이 상대방의 기분을 더 좋게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팀장님,
 직원들이 팀장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직원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신다고
 하던데요’라는 식이다. 간단한 사실 같지만 무언가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깊이 와 닿는 흥미있는 설명이었다.

● 그 다음으로, 흥미가 없어도 긍정하고 동의하며 상대방이 한 말에 질문
 으로 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TV 토크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맛장구를



잘 쳐야 한다는 것과 축구할 때 슈트를 쓰지 말고 패스를 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런, 진짜...’로 이야기에 흥미를 돋우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나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잡담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자존심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존심이란 말을 들으니 문득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 요즘 언론에 군대 내 폭행이나 탈영사건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나도 과거 군대시절에 이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 군대 상병시절, 이등병 한 명이 우리 부대에 전입을 왔는데 무슨 그룹
 이사의 아들이라고 했다. 다들 귀족신병이 왔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매우
 들떠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 신병은 부대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고참들이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 이 신병은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고참들이 말을 걸면
 용건만 간단히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부대 내에 친한 병사가 없으니 자연
 스레 따돌림과 괴롭힘을 많이 받았으며 결국 일병 진급휴가를 나갔다가
 친구와 함께 탈영하였다. 나중에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자신이 무언가 필요해서 먼저 남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주변
 에서 알아서 챙겨줬고 군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잘되지 않았고
 부대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탈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라온 환경의
 영향으로 군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 이면에는 자존심이라는 요소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 먼저 말 거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빠들게 나오면 나만 자존심 상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사회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음을 이 책
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당시 그 신병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동료
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하면서 부대에 적응을 해나갔다면 군대가 결코
불편한 장소가 되지는 않았을 듯하다.

● 그 외에도 30초 정도의 잡담거리들을 늘 준비해두고 다닐 필요가 있고

“
우리가 잡담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자존심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먼저 말 거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빠들게 나오면
나만 자존심 상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사회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음을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핫이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 대면할 때 상대방의 공통점을 빠르게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흥미나 관심거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매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잡담의 주된 화제가 남의 험담
이나 뒷담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테이블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기가 쉬운데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흥미있게 듣고 난 이후 나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던 것 같다. 절대 타인의
험담을 잡담의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하다.

● 얼마 전 극장에서 ‘타짜’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는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내가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영화였다. 이 책을 읽다 보니
대화도 일종의 기술이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말을 걸어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의 패를 읽어야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은
책이지만 읽고 난 지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까지 혼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잡담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하다.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친절한 선생님에게서 잘 교육을 받아 이젠 잡담이란
과목의 시험을 보면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과 누가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는가? 잡담에서 인간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 새겨진 듯하며, 기왕 잡담을 할 바에는 이 책
에서 설명하고 있는 잡담의 방법들을 연습하여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보다 일찍 끝난 교육이 행복이다

프랑수아 클로르의 <꾸삐 씨의 행복 여행>을 읽고

문화체육과 | 행정7급 | 이경혜



● 최근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2주 전 금요일이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된 '문화예술 축제 실무과정' 교육을 들으러 인재개발원에 3일간 다녀왔다.

● 장미 축제에 관해 고민도, 부담도 많았었기에 맨 앞에 가운데 자리에 홀로 앉아 열심히 필기하면서 졸지도 않고 모든 수업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자세로 들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재미있었다.

[배움1 : 관심 있는 것을 배울 때 행복을 느낀다]

● 성공한 축제 기획자들의 생생한 가르침도 좋았고, 남부터미널역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산길을 넘어 교육원으로 가는 등곳길도 좋았다. 쉬는 시간에 늦가를 정취가 쌀쌀한 뒷산을 산책하며 생각하는 시간도 좋았고, 어색하게 혼자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신선하고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마지막 날 국립극장 현장 학습이 생각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끝난 것이다.

[배움2 : 행복은 expectations를 벗어났을 때 온다]

● 그곳에서 걸어서 내려오며 선물처럼 주어진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얼 할까 가슴이 설레었다. 변화한 중심가에 나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오래 가진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걸어도 걸어도 커피숍은 길 건너에 있고 쌀쌀한 바람에 몸도 추워왔다.

● 동대문 DDP가 보여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온 곳이라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오래 걸어서 다리도 아픈데 그곳은 너무 넓었으며, 유류관람을 하는 곳도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으며 1시간의 자유시간을 소진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신내동으로 돌아왔다.

[배움3 : 행복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 나의 행복 여행은 11월 금요일문화공감에서 마무리되었다. '변진섭 콘서트'로 기획한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상기된 행복색을 돌게 만들었고, 공연을 지켜보며 가수의 별것 아닌 농담에도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며

노래를 따라부르는 숙녀들, 집으로 돌아가며 잘 봤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주민들 덕분에 나 역시 들뜬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맡은 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나 또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배움4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다]

● 꾸삐 씨처럼 중국의 노승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거나, 비행기를 타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연 속에 배움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장소와 시간만으로도 행복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행복은 무언가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면 그에 파생되어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고, 현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을 온전히 혼자 두면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카톡도 단체로 하며, TV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문자메시지로 참여한다. 예전 같은 공동체 삶 속에서는 모두가 스승이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았다면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으면서도 혼자임을 참지 못한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괜히 창피한 것이 아니라 ‘맛있으면 다음에 가족과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 커뮤니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독립체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서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주도성을 뺏긴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배움5 :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에 함께 있으면 더욱 행복하다]

● 낮간지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나요?”라고 물을 수도 없지만 “네,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나 같은 경우는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만 행복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못 한다. 사실 2주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꼭 행복하다.

●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아픔을 인정하고 다독이며 그 안에서 희망을 찾기에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전혀 괜찮지 않게 된다. 그리고 웬만큼 괜찮으면 그냥 행복한 걸로 치부하면 된다. 극강의 행복 추구 따위는 하지 말자. 조건이 많은 행복은 있을 수 없다.

“ 꾸삐 씨의 행복노트 행복해지는 열 여섯 가지 팁 ”



01. 남과 비교하면 행복한 기분을 망친다
02.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를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03. 많은 사람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04.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자유가 행복일지도 모른다
05.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행복일 수도 있다
06. 불행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은 아니다
07. 행복은 일종의 부수적 효과다
08.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
09. 행복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
10. 고구마 스튜!
11. 두려움은 행복을 가로막는다
12. 행복이란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13. 행복은 좋은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것
14. 사랑은 귀 기울여주는 것
15. 향수에 젖는 건 촌스러운 짓이다
16. 우린 다 행복할 의무가 있다

[배움6 : 나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 책에 있는 수많은 배움들은 다들 예상하겠지만 뻔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역시 다들 알다시피 행복은 따지고 보면 별 것이 아니다. 일상을 벗어난 3일간의 교육이 나에게 2주간의 행복을 주었고, 곧 행복 악발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행복 아이템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에 12월도 행복할 예정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공병호의 <우문현답>을 읽고

망우3동 | 행정7급 | 이호재



●● 공병호 저 <우문현답>이라는 책을 고르면서 재치 있는 답변의 능력을 키워주는 기술이나 그러한 사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인 재치 있는 답변으로 그러한 상황을 여유롭게 타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40여 년 전에 애청하였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재치문답'의 출연자들이 보여주었던 재치와 기지, 그리고 만담 같은 내용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는 재치문답은 고사하고 우문(愚問)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현답만이 가득하다. 이 책은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여 개의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다. 그 장의 제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이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 “첫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나를 긍정하다.” “열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삶을 배우다.” “순간의 소중함을 위하여 오늘을 살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날개를 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꿈으로 몰입하다.” “진짜 행복을 알기 위하여 성공의 의미를 묻다.” “스스로 완성하기 위하여 나로 살다” 등으로 장을 나누어 ‘우리의 삶에 정답은 없지만, 인생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삶의 문제들이 매번 다르기에, 그때그때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 다르고, 감상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장들은 나이에처럼 제게 흔적을 남기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인생의 물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 각 콘텐츠는 ‘단 하나의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관념으로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엄선된 문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 문장을 통하여 저자가 받은 감동과 감상을 짙막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결코 한 페이지를 넘기는 법이 없다. 각 콘텐츠 중간 중간에 ‘Letter(편지)’를 삽입해 놓았는데 이 또한 두 페이지로 한정하는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도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었고, 짧은 글을 통하여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통찰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 책을 처음 접하고는 페이지 별로 단락 지어진 재미없는 내용에 사실 적잖이 실망하였다. 첫 소제목인 ‘나를 사랑하라’로부터 다음페이지 ‘당신은 귀한 사람 인가요?’로 이어지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구구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 책꽂이에서 찜찜이 책을 꺼내 읽다 보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자주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였다. 당연한 이야기가 새롭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삶의 문제들이 매번 다르기에, 그때그때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 다르고, 감상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장들은 나이에처럼 제게 흔적을 남기고 공병호라는 한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군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5장의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에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 소개되어 있다. ‘역사는 인간을 현명하게 하고, 시는 지혜롭게 하고, 수학은 치밀하게 하고, 철학은 심원하게 하며, 윤리학은 중후하게 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은 담론에 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문은 인격이 된다.’라는 문장이다.

●● 공병호 작가는 이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폭과 깊이만큼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이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렌즈와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학문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하락)라고 서술하고 있다.

● 내가 이 책에서 감흥을 받지 못한 부분은 내 삶의 깊이가 얕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이 그 문장의 내용과 별 상관없어 절실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 오래전에 공원녹지과에 근무할 때 과장님께서 조경학에 대한 학식이 높아 인재개발원이나 대학에 출강도 자주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까지 인상 깊게 남아 있다.

● “아마추어의 순진한 발상을 전문가의 높은 식견으로 이해시켜라”는 말씀이다. 공원 조성이나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분별없는 요구사항도 많았겠지만, 주민 보다는 직원들에게 무게중심을 둔 말씀으로 이해된다.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주민들을 설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

려면 지식의 영역과 깊이를 가일층 심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달라이 라마의 ‘매 순간의 행복이 대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대목도 마음에 남는다.

●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안경렌즈 색깔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리라. 저자의 설명문을 보면 “(생략) 물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 눈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노력을 해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가질 수 있지요. 누구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 제임스 알렌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개선은 열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개선에는 기꺼이 나서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하였고 이 말이



‘나 자신부터 바뀌야 환경도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병호 작가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 없다”면서, “우선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인다’라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 보인다.

●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일일 게다. 그 불평불만이

자기 자신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행복은 지름길로 찾아올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 ‘해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도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말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답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으로 호리바 마사오의 <남의 말을 듣지 마라>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나 자신부터 바뀌야 환경도 바뀐다’와 ‘해답은 내 안에 있다’는 제목의 문장은 역시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만 ‘남의 말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

● 공병호 작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배울 것은 배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결국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신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기억하세요.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고, 모든 문제와 모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우리 직원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유답 교육’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는 “비전을 공유하라”이다. 생뚱췌베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한히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보여줘라’라는 문장이다.

● 참으로 마음속 깊이 와 닿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사람들에게 계기만을 제공하고, 꿈과 목적지는 스스로 발견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꿈과 목표를 찾는다면 가슴속에 성취에 대한 열망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찾게 될 것입니다(하락)”라고 설명하고 있다.

●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에게 꿈과 목표를 공유하게 하고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를 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조직이 임무를 부여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하는 일은 저마다의 꿈이 되고 자아실현의 목표가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성과는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어 스스로에게 충족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다.

● <우문현답>이라는 책의 제목을 접하고 나니 우문에 현답을 내놓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솔한 일들이 불현듯 하나씩 떠오른다. 그중에 지금껏 억울한 심정이 드는 일이 있는데, 그때 내 처신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도 가끔씩 들곤 한다.

● 내게도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참으로 강한 의지를 불태우던 시절이 있었다.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그 의지는 지금 돌이켜봐도 그야말로 ‘정신일도 하사 불성’의 집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10년 동안이나 다니던 직장은 그날그날 자기 일을 끝내고 나면 자유시간인지라 맡은 일을 바람같이 끝내고는 50일을

한결같이 공장 독서실로 달려가곤 했었다. 독서실은 3층 건물 옥상에 지어진 가건물이었고, 3층엔 교회가 들어와 있었다. 하루는 독서실로 올라가다가 3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고 나오려는데, 화장실 관리인인 듯한 아주머니가 3층까지 올라와 남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몹시 역정을 내셨다.

● 이 건물 옥상에 있는 독서실에 선불로 비용을 지불한 나에게는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옥상에는 화장실도 없지 않은가? 그 권리가 무시당하니 화가 났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옥상 독서실로 올라가는데, 또 어디로 올라가느냐고 그 아주머니의 불쾌함이 잔뜩 묻은 음성이 뒷전에서 들려왔다. ‘내 돈 내고 사용하는 독서실인데 왜 내가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되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한바탕 퍼부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냥 또 대꾸도 없이 올라갔던 기억이다.

● 하루는 독서실에 들어가니 누군가가 여러 개의 책상과 의자 사이사이 통로에 굵은 실로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모습이

보였다. 텅 빈 독서실인지라 학생들이 장난질을 하였나보다 하고 빈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서실 주인이 차나 한잔 하자고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중년 여사장이 차를 권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면목동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난 이렇게 한가롭게 차나 마시면서 잡답이나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별 대꾸 없이 빨리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 서른 살도 훨씬 넘어 보이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독서실에서 공부랍시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던 것 같다. 아마도 나를 경쟁업소에서 학생들을 빼가기 위해 온 사람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 그때 난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데 누가 무슨 오해를 하든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었다. 오직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오늘 계획된 분량의 공부를 잘 수행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라는 생각뿐이었다.

● 화장실 사건에선 옥상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냥 가볍게 말하면 될 것이고, 독서실에선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하다 보면 부정이라도 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담이나 전설에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여 오랜 기간 공들인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부류의 이야기들이 솔하게 많다. 어쩌다 큰소리라도 내다 보면 여태껏 공부한 내용들을 다 잊어먹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다. 이제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진해왔는데, 공든 탑 무너지듯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 다음 날엔가 그 여사장이 내게 “오해를 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학생들이 장난을 한 것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역시 묵언수행을 하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별 대꾸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문에 현답을 하기 위해선 우문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답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묵묵부답도 우문현답의 한 방법이고 즉문즉답을 피하거나 동문서답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다.

● 공병호의 <우문현답>에서 우문은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현답을 제대로 내놓기 어려운 우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겠다. 혹 오해받은 일이 있다면 나만 떳떳하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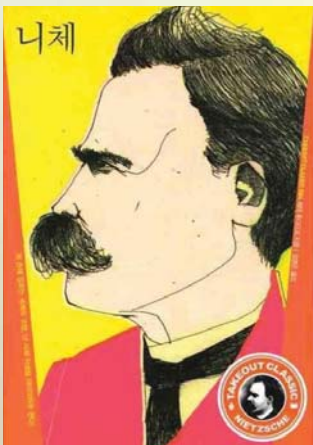
● 청렴한 공직생활이나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우문현답이라는 화두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생각된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 만큼 관행적인 처신에도 분별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청렴에 위배되거나 불친절의 오명을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 울여름에 내가 제출한 청렴결의문의 문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떳떳하다 방심 말고, 관행이라 추종 말자.”

니체의 독설에서 위로를 받다

<니체>를 읽고

세무1과 | 세무6급 | 최원숙



● 지난 11월 1일 고등학교 때 동원된 집회(이웅평 귀순 관련 집회라 기억됨)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집회에 참석했다. 일차적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함께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과 상대를 알 수 없는 배신감의 표출이었다.

● 세무직렬인 나의 업무상 상대하는 대부분의 민원이 세금 납부관련이다. 물론 확률상 좋은 말을 듣기 힘든 상황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욕설들과 막무가내식 우기기에 어찌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는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거였나, 공무원 계속해야 하나?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등등 절망이 뒤덮던 시간에 내 눈에 들어온 징수보고서 한 장이 있었다.

● 재산세 징수율 98% 체납 2%! 그렇구나, 98%의 국민들은 정말 선량하구나 2% 그중에서도 막가파 0.1%가 문제였구나! 이후 막말에 피를 흘리며 상처만 받았던 나는 0.1%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체납자 상담 스킬도 터득하고,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상태와 나를 보호하는 방법도 탐색했다.

● 2012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징수율 20% 안쪽 체납 80%, 막말 · 욕설은 수치로 계산할

수도 없다. 이 나라가 자신을 망쳤다는 것은 기본.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편하게 앉아서 국민의 피를 뽑고 있지 않느냐, 예금 압류하면 나는 굶어 죽으라고? 왜 미리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컴퓨터 키보드 몇 개 치면 나 어디 있는지, 내 전화 번호 다 나옴텐데... 너 나한테 죽어볼래 XXX'. 이쯤 되면 난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기 내려놓는다. 20~30분 뒤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위치, 전화번호 모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인공위성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허용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로 시작해서 체납정리 상담에 들어간다.

● 난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하게 한 적 없었는데,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 많은 이들로부터 친지로부터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국민연금과의 정상적인 비교데이터가

아닌 일방적 수치로 공무원 전체를 이 나라의 도둑놈으로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은 나에겐 커다란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왜 언론은 정확하게 비교분석하지 않고 보도했을까? 그들에게 충분히 비교분석할 능력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런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변인들의 수준은 또 어떠한가? 남 잘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물귀신들 인가? 난 타인에게 직업을 공무원이라 하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공무원 동료들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재정 운영 관련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이런 시기에 정동호님의 <니체>를 접하게 되었다. 너무나 어려운 니체를 알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석을 참고하고자 선택한 책이었다. 철학자의 말은 그 시대를 보여 준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는 과학기술 혁명에 힘입어 진보에 대한 낙관과, 역으로

생의 빈곤화와 사회 구조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는 어수선한 시대였다. 그는 근대사회 질환 뿌리를 그동안 생명을 이성화해 빈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과 보편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의 현실을 등지게 한 이성주의 전통(플라톤 이데아사상)에서 찾아냈다. 또한 천상에 근원을 둔 도덕으로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억압해왔다고 판단한 그리스도교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 자연에서 인간의 의지를 주장해야 했던 그는 “신은 죽었다”를 외쳤고, 신의 죽음에서 오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이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한다. 이때 자연은 루소의 신비한 자연이 아닌 치열한 경쟁이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 신은 될 수 없지만 인간 자신만은 뛰어 넘으려는 의지를 강조한 니체는 영원한 회귀가 우리의 운명이라면 운명을 사랑하라고 한다. 니체가 당시 시대를 비판한 대중교육과 대중문화에 대한 한 대목이다.

●●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지식과 천박한 지식이 넘쳐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얼치기 지식인, 유식한 바보들이



“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지식과 천박한 지식이 넘쳐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

거리를 누비게 되었고, 그와 함께 사회가 빠르게 우민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표적으로 삼은 것도 그 당시 신문이었다.

●● 내가 느꼈던 배신감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일반대중에 대한 모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의 독설이 통쾌하기도 했고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표시되는 텍스트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번 일도 나와 관련된 일이기에 제대로 알려고 비교분석했지 다른 이들에 관련된 사안이었다면 나도 똑같은 바보였을 것이라는 반성이 이어진다.

●● 위버멘쉬(초인)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내용 중 ‘인간 말종 – 보다 지체 높은 인간 – 위버멘쉬’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 말종에 대한 니체의 날선

비판은 나로 하여금 짜라투스트라에 빙의되어 악질미원인에게 퍼붓는 후련함을 안겨주었다. 이후 물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현실에 약간의 허무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저항 하나는 제거한 듯하다.

●● 니체가 살았던 시대의 문제현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산술적 평등주의의 역기능인 하향평준화 현상, 과학기술 혁명의 어두운 이면의 모습, 대중을 등에 업은 언론의 기승, 비인간화 등은 여전한 오늘의 문제이다. 시대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했던 니체의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니체의 글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또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내용도 많다. 본문 내용 중 영원회귀 등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아마 여러 번 읽어도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글자가 눈에 들어 오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다. 내가 왜 이 책을 선택했을까? 후회하게 만든 책이기도 하다.

●● 그렇게 어렵게 읽은 이 글에서 받은 최고의 조언은 관점주의였다.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다. 즉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임의의 취사 없이 모두 받아들여 대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한 줄에 자신의 얇은 지식을 얹어 성급하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경고이자 현실의 삶을 사랑하는 ‘생애’의 표현이다.

변변이 후회하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당신을 위한 똑똑한 생각법!

롤프도벨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을 읽고

기획홍보과 | 임기8급 | 송영근



● 스마트한 세상 속의 사람들. 과연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한 생각으로 스마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도심의 전광판에는 많은 인기 스타들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잘나가는 프로야구 선수가 라면 마니아 인듯 묘사되고 예쁜 여배우가 살림의 달인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인기 있는 스타가 광고에 출연하면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그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도 나빠진다. 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쉽게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후광 효과(halo effect)'가 무의식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이다.

● 이렇듯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녹아 있는 크고 작은 심리법칙들을 이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독일의 기업가이자 강연자인 롤프 도벨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 법칙을 책에 소개 하면서 이런 법칙들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우선 앞에서 소개한 '후광 효과'는 저자가 책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심리 법칙이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배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모습도 보게 된다. 결국 인간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심성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보다도 심리 법칙이 현실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 물론 객관적 판단을 마비시키기도 하는 이런 후광 효과가 어느 순간에는 멋진 결과를 낳기도 한다. 뜨거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후광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한 존재로 보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해도 그저 질투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저자는 후광효과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하지만 종종 큰 폐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출신,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외모, 나이와 같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체적인 인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이 효과의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학력이 좋으면 그 부분에서 칭찬이나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심리 법칙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보통 주식 매매를 결정할 때 매입 가격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는데,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높으면 팔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낮으면 팔지 않는다. 문제는 매입가보다 점점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가격에 사로 잡혀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전 생각에 아까워서 매도를 못하고 손실비용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 이런 상황을 저자가 소개하는 두 번째 심리 법칙인 ‘매물 비용의 오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심리적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덜 불행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으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언젠가는 그 주식이 폭등해서 자신의 손해를 다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데 매입 가격이 주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매입가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주가 변동에 대한 분석과 전망인 것이다. 미래의 예측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매물 비용의 오류에 빠지면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빨리

“출신,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외모, 나이와 같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체적인 인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이 효과의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깨닫고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무엇을 얼마나 투자했든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저자는 이 밖에도 타고난 신체조건은 무시한 채 운동만 하면 무조건 몸매가 좋아질 거라 착각하는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 희소한 것이 더 특별하다고 여기는 ‘희소성의 오류’, 죄를 짓고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선물을 받으면 값야 할 의무를 느끼는 ‘상호관계 유지의 오류’ 등 52가지의 다양한 심리법칙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심리적 ‘편향(偏向)’에 대한 법칙들에 마음이 끌렸다. 확증 편향, 행동 편향, 부작위 편향, 이기적 편향, 자기 선택적 편향, 호감 편향, 이야기 편향, 사후 확신 편향, 결과 편향, 생존 편향, 연상 편향, 권위자 편향까지 총 12가지의 편향 관련 법칙들은 인간이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편향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얼마 전 친구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서서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날과 비교해서 몸무게가 줄었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반대로 몸무게가 늘었으면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

김미경의 <드림 온>을 읽고

민원여권과 | 행정8급 | 김향내



● 꿈이란 무엇일까? 어느새 30대를 훌쩍 넘어버린 나에게 있어 꿈이란 단어는 이제는 철없고 감상적인 단어로 느껴진 지 오래이다. 나의 20대는 꿈은 꿈일 뿐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해준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꿈이란 단어는 나에게 있어 더 이상 가슴 떨리지도 않는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은 먼지 쌓인 작은 상자와도 같았다.

●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서 과거에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바뀐 일상 속에 하나둘씩 잊혀져가고 이젠 매일 먹고사는 일, 돈 버는 일 외엔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일도 에너지를 쏟는 일도 없게 되었다.

● 꿈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더 나은 삶,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 이 책에서 말하는 꿈이란 거창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꿈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현재는 언제나 미래의 희생양일 것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라는 존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버린다.

● 성공을 기준으로 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 더 유명해진 사람, 어제까지는 나랑 비슷했는데 갑자기 뜬 사람...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꿈은 늘 초라해지고 위축된다. 작가는 꿈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꿈을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안다는 말과



동언어이다. 꿈이 나다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힘겨운 경쟁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꿈은 그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모양, 색깔, 속도 대로 그려가는 나만의 그림일 뿐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각자의 그림이며 꿈을 이뤄간다는 것은 '나다움'이라는 자기만의 그림을 완성 해가는 일인 것이다.

● 이 책을 읽고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내 꿈들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는 느낌이 었다.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던 꿈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았다. 어린 시절 남몰래

품었던 꿈부터 일상의 아주 소소한 꿈들까지.

● 꿈을 이루려면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지키기 힘든 약속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반복된 실패로 의욕마저도 꺾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보다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준비하기, 주말에 TV 시청 줄이기,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키기가

꽤 어려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 버리곤 했던 것들이다.

●●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꿈은 현실 속에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발로 뛰어 야만 그 실체가 드러난다.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실행력이다. 따라서 좋은 꿈이 실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좋은 꿈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다.



●● 우리는 가끔 ‘나에겐 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며 한탄할 때도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맞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나가는 일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왔던 기회가 된다.

●● 중요한 것은 실행력의 데이터다. 뭔가 해낸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에서 기회를 쉽게 발견한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가까이 다가와도 무심하게 흘려보낼 뿐이다. 꿈을 찾는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내가 원하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꿈으로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모두 내 안에 축적되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일터와 꿈터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내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직장은 꿈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꿈터는 24시간 부대끼는 이런 따분하고 지겨운 곳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에 가득 찬, TV나 잡지에 나올 법한 공간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직장은 생각보다 훌륭한 꿈의 학교가 될 수 있다. 꿈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에서든 꿈의 요소를 발견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꿈같은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돌아켜보았다. 직장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기 보다는 생계를 위하여, 그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 정도로 치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진짜 꿈은 가슴속에 고이 접어 언젠가 해야 할 숙제처럼 미뤄두고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 아닐까.

●● 꿈은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을 무언가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동행

“

뭔가 해낸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에서 기회를 쉽게 발견한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 될 수도 있다.

”

하며 나를 이끌어줄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내 꿈의 요소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부딪히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내 꿈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항상 기도하며 바랐던 것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다시금 기억이 떠올랐다.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인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꿈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시 꿈을 꾸기로 했다. 꿈은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자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일 것이다. 더디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오늘도 나는 그렇게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

‘2014년 행복도시 중랑 10대 뉴스’

‘나진구 민선6기 중랑구청장 취임’ 1위,
‘용마터널 개통’ 2위, ‘봉화산 화약고 이전’ 3위로 뽑혀

1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77명의 81.83%인 554표로 최다 득표를 획득한 ‘나진구 민선6기 중랑구청장 취임’이 JBN 선정 2014년 중랑구 10대 뉴스 1위로 차지했습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으로 당선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중랑을 위해 한걸음 내딛었습니다.

2위



이어서 523표를 획득한 ‘사통팔달 중랑구, 착공 5년 만에 용마터널 개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용마터널은 용마산을 관통해 중랑구 면목동에서 구리시 아천동까지 연결되며, 암사대교와 바로 연결됩니다.

용마터널의 개통으로 중랑구민들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중부 및 경춘고속도로 진입이 20~30분 정도 단축돼 출·퇴근과 주말나들이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3위



10대뉴스 3위는 491표를 획득한 ‘봉화산 화약고 20년 만에 이전’이 차지했습니다. 봉화산 화약고에는 삼성화약상사의 폭약과 불꽃류 등이 약 10만 톤이 저장돼 곳으로 지난 11월 1일 다른 곳으로 완전 이전했습니다. 중랑구는 내년 6월까지 화약고 부지의 산림생태 복원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대 뉴스 4위는 ‘청렴도시 중랑-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이 차지했습니다. 중랑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점 만점에 8.15점을 획득해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특별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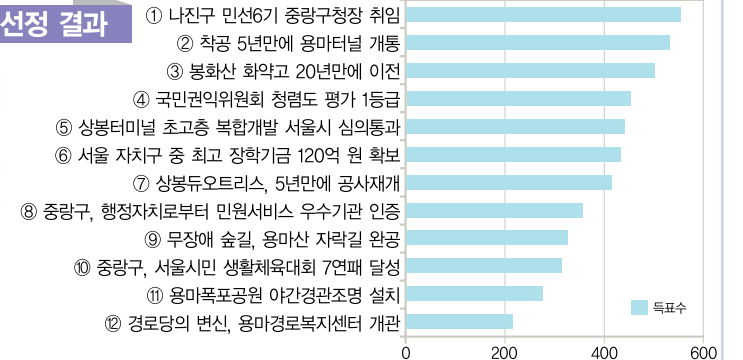
10대 뉴스 5위는 ‘상봉터미널 초고층 복합 개발 서울시 심의 통과-망우, 상봉역 일대 중랑코엑스 개발사업 탄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상봉터미널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상봉터미널 부지에는 판매·업무 시설을 갖춘 52층 주상복합건물 3개동에 총 82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백화점, 오피스텔,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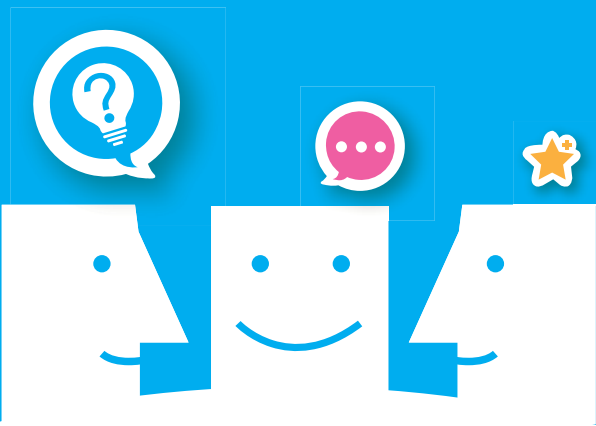
그 밖에 10대 뉴스로는 6위 ‘서울 자치구 중 최고의 장학기금 확보, 중랑장학금 120억 원 조성’, 7위 ‘상봉듀오트리스, 5년 만에 공사 재개 2016년 1월 준공 예정’, 8위 ‘중랑구, 행정자치부로부터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9위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숲길, 용마산 자락길 완공-중랑둘레길 완공’, 10위 ‘중랑구,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7연패 달성’ 등이 차지했습니다.

기타, 10위권 밖의 등외의 뉴스로는 ‘용마폭포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 ‘경로당의 변신, 용마경로복지센터 개관’ 등이 선정됐습니다.

중랑구, 2014년 10대 뉴스 선정 결과

설문기간 : 12.10.~12.16.(7일간)
설문대상 : 중랑구민, 중랑구공무원
설문응답자 : 677명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